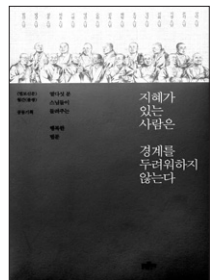


“놓으시면 바로 자유로워져요”

15명의 선지식이 들려주는 명법문 모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보신문
월간 (불광) 기획
불광 펴냄 11만4천원



제법 불교공부를 했다는 사람도 막상 불교 교리나 선(禪)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어렵다'는 말을 반복한다. 습막힐 정도로 빼곡한 한자나 이해하기 어려운 선사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책을 볼 때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불교에 '입문' 하기로 마음을 낸 사람이라면 이런 애로사항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법회에 가거나 하면 된다. 스님을 상대로 하는 설법이 아닌 이상 '법회'에서 들려주는 스님의 법문은 쉽고 명쾌하다. 법문에는 각주도 없고 애매한 결론도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스님들이 법회에서 한 법문을 모은 것이다. 때론 수천여 명이 모였고 때론 2~3백여 대중이 모였다. 법문 들으러 온 사람들은 선문답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어려운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아니다. 땀을 흘려온 사람도 있고 스님들은 언어나 사람에게는 비유는 법을 가르쳐 준다.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면 영원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놓아버리세요. 지금 자유로워지세요. 현재는 과거의 필연적 산물이고 모든 미래의 필연적인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깨달음의 성취도, 평화스러움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나 다음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여기에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머물러 고정된 관념과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미태탈한 자유로운 존재이며 부처님 품속에 들어 있는 존재입니다.”(前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스님 법문중에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은 참 쉽습니다. 술잔을 들지 않고, 성냥을 켜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습성에 빠진 우리에게 잔 하나 들지 않는 일이, 성냥 하나 켜지 않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일으키고 마음을 쓰기도 어렵지만, 몸으로 실행하기는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을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항상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조금씩 자신을 바꿔가는 수행을 계속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달라진 스스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해인사 승가대학 강주 해월 스님 법문중에서)

이 책속에서 법문 하고 있는 스님의 일상상은 법문을 듣고 있는 신도들과 비교해 무엇 하나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에 비춰 법문을 하며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새로운 세계로 전환될 수 있음을 그리고 결국 죽음과 태어남이 하나로 얽혀 있음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스님들의 경험에는 웃지 못할 상황도 종종 엿보인다.

자기자신 이기는것이 수행

원력은 행복으로 향하는 문열어

대중 눈높이 맞춰 차근차근 설명

“잠깐 제 출가 본사인 금산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들려 드리겠습니다. 당시 한 보살님께서 절에 자주 오셨는데 종종 법다보니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보살님께서 제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스님, 관세음보살보다 더 영험 있는 분이 누구니까?” 질문을 받은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영진 대사를 찾으시오.”라고 답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제를 맞아 선방에 들었다가 정진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글세 금산사가 온통 웃음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제 말을 철썩 같이 믿고, 기도를 할 때마다 “영진 대사, 영진 대사...” 하며 제 범명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살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보살님께서 바라던 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관세음보살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순수 하게 믿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입니다.”(백담사 무공선원 영진 스님 법문중에서)

어떻게 보면 스님에게는 낮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것이지만 이 경험을 들려주며 스님은 무엇이든 그것을 확고히 믿고 일념

으로 정진하면 그 마음이 도달하는 곳에 행복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은 모두 열다섯 분이다. 많게는 50년 넘게, 적게는 25~26년을 헤아리는 기간 동안 절집에서 살아온 다양한 이력의 수행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법문 속 메시지는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왜 '마음'을 찾아야 하는지, 두 번째, 왜 행복할 수 없는지, 세 번째, 왜 내 이웃의 자비를 빌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첫 번째 '마음'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은 경봉 스님의 말을 인용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더라도 그 주인을 찾아보지 않고 가면 무례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몸을 평생 끌고 다니면서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내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을 찾는 일이 왜 중요한지 한 치의 애매함도 없이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곧 두 번째 물음, 즉 이 마음이 왜 행복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지현 스님(부산 관음사 주지)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천진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린아이를 보면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건 요구사항이 많아질 때, 즉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누구나 욕심이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면서 고통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열다섯 분 스님들이 들려주는 법문에는 이런 믿음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깨어있으면 내면 들여다 보여

과거의 삶은 연습일 뿐 현재가 중요
법륜스님 생생한 현실 언어로 설명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가르침 강조



스님들이 먼저 읽고 권하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기도>를 통해 자기변화 방법을 알려주었던 법륜 스님. 이제 스님이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한다. 현재를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마음의 눈을 감고 습관처럼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는 세상이 어둡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아우성이다. 법륜 스님은 이 순간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보다 '내 눈을 뜨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지금 '깨어있음'에 대해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말 대신 구체적이고 생생한 현실의 언어로 가르침을 전한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때는 언제였는가? 내 자신을 위했던 때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가족을 돕고 친구를 돕고 남을 도왔던 때인가? 남에게 도움이 될 때가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로 남아 있지 않은지. 결국 그러한 일이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더 이롭지 않았는지.

법륜 스님은 짙막한 일화들을 통해 지금까지의 내 삶과 현재의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한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내면의 들여다보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헛된 삶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다. 그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동안의 헛된 삶을 버리고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지금 여기서 '내 눈을 뜨는 것'이 절실한 깨달음이다. 감았던 눈을 뜨고,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위해 불을 밝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상구보리 하화중생, 붓다가 오래전에 우리에게 전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 책은 깨닫게 해준다.

“스님은 무슨 부처님 깊은 가르침은 애기하지 않고 인생 상담이나 하고, 그저 웃고 야단만 치고 그만니까, 사람들은 얘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리에 어긋나는 것을 계속 고집하면 스님이 야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삶은 연습일뿐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에 당당히 서면 됩니다.”

깨달음 | 법문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2천원
김주일 기자

책 속의 밑줄 긋기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며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후회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 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죽음밖에 걸렸거나 재앙이 닥쳐 곧 죽게 되었다고 해서 그만둘 일이라면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달 뒤면 죽게 된다는 선고를 받더라도 죽음 직전까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은 가치 있는 일이 된다.”

▲“나는 길가에 핀 풀 한 포기과 같다. 자신이 별 게 아닌 줄 알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그 때문에 결국 특별하지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마음공부는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따라 배우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참자유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수행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의식혁명이다.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또 바뀐다는 말이다.”

‘비움’ 통해 변화된 세 모녀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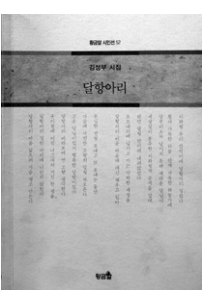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도시로 나와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잠시나마 유학이란 것도 해보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숨 가쁘게 돌아가는 체제 속에서 평범하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순간, 몇 번의 우여곡절을 경험한 후 '덜 틈 없이 쫓기며 쫓아

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른 길은 없는 걸까?'를 고민하게 됐고, 결국 '체제'로부터 벗어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그녀가 두 딸 아이와 선택한 삶은 바로 '땀'으로 돌아와 농사짓고 사는 삶이었다.

이 책은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과 고투의 기록이다.

없는 것이 많아서 자유로운 | 도은 여연 하연 지음 | 행성81 펴냄 1만4천원 김주일 기자

오체투지 정신 시에 녹아 있어



선(禪) 수행을 바탕으로 시작(詩作)을 해왔던 시인 김성부가 2005년 <이별연습 그리고 기타림> 이후 6년 만에 두 번째 시집 <달항아리>를 발간했다.

책에는 김성부 시인이 국내 사찰과 명승지, 강가를 다니며 녹여낸 시 70여 편이 담겨있다. 김성부의 시는 무유정물(有無情物)을

부처삼아 옹맹정진하는 그의 정신이 서정적인 분위기로 표현돼 있다. '선화(禪畫)'라는 작품에서 '언 마음으로 살며시 석양을 불러놓고/ 오래도록 선정(禪定)에 들 수 있을는지'라는 화두를 통해 그의 옹맹정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김영탁 문학평론 주간은 “김성부 시인의 오체투지 정신이 시와 결합해 아름다운 서정의 꽃을 피우며, 독자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달항아리 | 김성부 지음 | 황금달 펴냄 | 8000원 이은정 기자 soe84@hyunbul.com

제1회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학인모집(서울범패)

소승은 한국불교 범음범패 및 불교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여년을 연구하고 공부해 온 범음승으로서 한국불교 흥익범패단 창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께서는 직접 오셔서 일차로 청강하시고 뜻을 함께 하실분은 연락바랍니다.

강의 내용

1. 기초 : 삼위의, 사홍서원, 거불, 도량계, 종승, 조석예불, 사시불공, 요령, 목탁, 태징, 북 등 사물 다루는 법.
2. 중급 : 시련, 대령, 관육, 신중청, 상용영반, 관음시작, 고혼소, 봉칭(깃소리), 39위, 북청계, 고혼청, 현좌계, 진령계, 칠연사구성, 가영, 향화청, 고아일심귀명정례, 긴소리, 짧은소리
3. 상급 : 시다림, 다비, 일반장례, 산신제, 용왕제, 방성, 생전예수제, 수륙제, 종사이운, 폐불이운, 종사영반 화정, 공덕계

- 개강일시 : 2012년 3월 27일(화요일) 오후2시 ~ 6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모집
- 회비 : 월10만원, 6개월 50만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영환관 사진 2장
- 장소 : 김해시암연학회 불교문화원 3층 법당
- 주소 : 김해시 흥동 7-5번지
- 전 화 : 055)322-0088 / 055)332-1675
- 강 주 : 민지호 010-4466-3575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전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진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평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함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절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함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계, 다계, 향화계, 오공양, 음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범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의처 : 강주 흥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21:00 ~ 03:00 법화경 전문 독송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2012.3.25 ~ 2014.12.19 (100일 X 10회)

▶1차 백일기도 (매회 회향일 마다 합동천도제 봉행)

- 기 간 : 2012년 3월 25일 ~ 7월 2일
- 내 용 : ① 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 ② 법화경 사경 ③ 염불 ④ 108배 (동참 불자님은 위 4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동참금 : 10만원
- 접 수 : 전화접수 가능
- 문 의 : 032)932-3525 / 070-4147-6525
- 차량운행 : 조계사암 매주토요일 저녁 7시 (차량기사 전화 : 010-4931-5713)

※ 부처님 봉안불사 동참자, 개금불사 동참자(접수중)는 천일동안 축원하여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